

○우리교회 성구○

나의 할이 되길
호하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시편 117:1)

총회

703 604427442503 757055

1972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김 장 인

편집인 윤 중 순

서울강구출판부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 회 교 회

(32) 4427 • 9728

*
19절을 맞은

목사님에게서 온 편지

우리 총현교회

내내단

오늘의 모습!

총현의

여러 장로님, 집사님, 권장님 등
주일학교 작부 교사, 작부 성가대원 등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가운데서 영육이 아물
리 정강화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의 응답을 받으면서 미국에 도착하여 코스엔
펠리스를 거쳐 저들은 코로라도에 머물며 18~
20일까지는 시카고 연립교회를 인도하고, 워싱
턴과 뉴우유을 거쳐서 9월 초에는 조 원일 목사
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날 계획을 하고 준비하
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저 목회 전강만
을저리길 구하고 및 나라와 성지를 순방하고 인
도네시아 일본을 거쳐 필리핀을 인도하고 철수하
마는 지일 안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코스엔펠리스에서는 드 목사님 지무하는 교회
에서 새 시각 설교하는 중에 큰 은혜를 사르 받
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쯤 문안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 8월 13일

목사 김 장 인

중 제의 인도 서명 중이신 남의장 김 장일 목사님은
사십살 성령 순방을 못하시고, 일본을 거쳐 저들
은 인도네시아 선교활동을 돌보고 지일 중입니다.
김 목사님은 매성모라 할지 이 달 중순에 돌아오
시길 바랍니다.
<지일지 중일>



□ 설 교 □



극진히 찬송할 하나님

성경/시편 48:1~14

김재창 목사

지난 여름에 어느 교회의 대표자일 듯한 분이 김창원 목사를 만났을 때 감사로 모시고, 대교회의주의 철학을 들어 보고 싶다고 권하기를 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 일하고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철학에 의해서 대교회가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참되게 믿어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크기에 보니 오늘날 본 교회가 되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닌 특수한 철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은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극진히 찬송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 48주는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 크고 넓으신 하나님(1~2)

사온날 제사장들의 유력자들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에 의해서 죄와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같이 커가도 극진히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온 구원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이 19년전 18명의 죄인 주로 시작한 중천교회를 이끄는 천국에서 온왕 되는 대교회의 대주주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세져 만민에 주음을 베푸시는 대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바울사도의 복음 사명을 대교회의 온 성도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교회의 학살과 광란을 감행한 주종자를 세력적인 온 주자로 키워주시고, 세계 주종들을 어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이 성령의 크고 넓으신 계시를 대하여 이제 극진히 찬송을 지니할 수 있겠습니까?

2.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3~8)

이스라엘을 끊임 있는 원수의 성노에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강아지와 새끼와 원수와 폭풍의 물결 속에서 그 백성들을 정당하고 감동하게 보호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옛날부터 사탄의 피난처로 지음이 널리 많은 수탈자에게 있어서 바닷물 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끊임 있는 우리와 어린이로써 우리를 지키는 보호의 보호를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용서할 주의 은사를 베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실을 그대 주께 고백하고 우리 원수와 악마를 일본사람의 같은 존재로 그대 주께 용서할 것을 믿고서만 믿고서만 우리 주께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입니다. 이제도 우리의 유익한 자들이고 살아 계시고 앞으로

도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악마를 버리고 주께로 주께로 의지하십시오.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악마는 (1)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 (2) 그의 은사와 인자 (3) 그의 진실과 성 (4) 그의 능력이라는 네가게 기쁨으로 믿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찬송으로 이 하나님을 성령에게 찬미하십시오.

3. 형제가 중언하신 하나님(9~13)

하나님께서 성령철학의 공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철학은 하나님의 악마를 버리고 믿고 믿고서 선한 일을 중언하여 악마를 버리고 선한 일을 베풀는 주한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의욕으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사탄에게로 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성령으로 의욕하고 원통한 일들을 마치는 것이 행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살아 주십니다. 그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과 기쁨을 다하는 찬송과 예배가 행하여지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동한 것입니다.

4. 우리를 죽게 하신 하나님(14)

이제 이 하나님이란 위에서 말한 대로 크고 넓으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형제가 중언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 이 지켜주시는 모든 우리들이 지각의 행한 것까지 있을 것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신 하나님도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 순간까지 살아와 있을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을 믿게 하신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영원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날까지 살아내어 주시고 만민과 모든 존귀한 데 세워 주시어 앞길을 열어 주시고 그날의 우리 과거 복지에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천교회의 1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대교회의 주권을 감사하여 주신 찬송을 주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전한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감동하는 사탄적 사명을 대적하고 악마를 버리고 주께로 선하게 행하는 참된 믿음을 주는 보호하는 교회도, 우리 앞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교회도, 세계 보라 크고 아름다운 성령을 믿고 행하여 감동하게 행하는 교회로 성령 중언을 믿고서 선한 존귀한 것은 사탄이 사탄하는 나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크고의 주종자>

□ 논 단 □

우리 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

백 성 례 목 사

「종교 10년사」에 의하면 1953년 9월 6일(주일) 인천중에 소재하는 한일미 집사(후에 목사)의 교회는 18인의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중립교회는 탄생하였다.

그 이후부터 매년 9월 첫주일을 교회일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다. 기념일과는 5년마다 갖게 되어 왔으므로 금년 10월 기념일과는 일곱째 해인 20주년 때 기념일자가 있게 될 것이다. 교회일립 당시에는 중립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가 1956년 8월 12일부로 중립교회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오늘의 예배당 터의 터전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기묘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일립 미 「교회자」라는 잡지가 있었으며 그 후, 그들은 잡지를 읽고 「집중자」이라는 요절을 세웠다가 천주교회에 귀의하, 우리 교회가 이 터를 사는데 처음으로는 집합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며 오늘날 같은 중립한 예배당을 두 차례의 큰 건축공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본당은 55년 12월 17일에 준공하고, 1961년 9월 28일에 직공당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백년 남지 못했을 작지만 19년 동안 많은 감동과 축복의 목회로써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감사하나 기록이 있어 손으로만 부흥 성상해 왔다. 18인의 교우로 시작된 교회가 8년 8월 19일 1961년 9월에 이르러 장년 830명, 중·고등부 145명, 유년·초등부 560명으로 성장했고 1962년 9월에는 교회는 장년 1,190명, 중·고등부학생 227명, 유·초등부 697명으로 격증 융성하였다. 예배당 건물 지인과 이후로 세 교파의 유·초등부 경우는 2년 동안 합동로 함께 된 것이다. 사설이므로 수문할 수 없었던 사설지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저자가 문자가 결탁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제 10주년 기념과 그 이후 9년을 격조한 오늘과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제각각 지역과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금년 9월 30일 주일 남침례주일 할아은 나일 장년부 1,918명, 주일학교 제 1부(유년)교우 736명, 중등부 311명, 고등부 215명 포함 3,250명이다.

9년전 2,129명의 교회인 약 50%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부흥과 번영의 본체인 장년부가 40%, 중·고등부가 121%, 유·초등부가 6%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초등부의 경우 지역적으로 보면 장로들이 주년대로 계속되어 학생유치의 원천이다. 특히 교회가 소재한 중구 일대 인구나 격감됨에 따라 수개의 국민학교가 폐회될 사정이 적절되어 있어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일족으로 내세우 문리 발달한 교육시설을 가지고 소수의 교육목적을 알파인 지역으로 교회에 할 여지가 있다.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교육시설 확충없이 성년, 유년 위주 교회만 지출한 교회와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확충한 교회라는 그 현실상이 적절할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회으로 우리 교회는 일립 10주년을 맞이한이후에 이 것을 고려하여 장년 장로부 9,000명 대 격증 확고하고 일으로 이상적인 교회로 모든 사들을 성취해 오고 있다. 앞으로 어느 곳에 교회당을 개 두는지 불분하고 현상정적 개회당과 교육권을 지키는 한하는 것만은 절실한 요청이다.

주일 예배를 두 차례에 나누어 드리는 일이나 10% 주일학교가 모여 공부한 용지 차등이 많아 회적이는 원천이라는지 각자의 최치선과 성가회 전승들이 있다는 것 등은 본 교회를 운영에 관해 있어서 적지 않은 대안이 있다. 1,000여 대의 대승원이 장입하여 이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중이지만 「성경 전후」와 「집고서」와 「전국 일

군 일립」이라는 3대 목표를 일제에 수완화하려는 계획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간 북돋움도 사임을 화정하기 위한 일립의 일적기구를 수감해야 할 단계에 있다. 비록적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적기회, 거처정도, 우리 참여성과 한일미지배 손을 여러 가지, 한일미도, 일립교회를 개발할 결과 문제점으로 특수할 것을 교우들은 피상하고 있다.

금년교에 들어서 세수입입과 성년부 최치선의 전모정론 다양한 것이어서 이대로 손해등에 계속한다면 전모정론에 수감한 일립들이 불침에 나하날 것이 확실해진다. 교회는 적지않게 대지할 뿐 아니라 전모의 일립을 전 교회에 파종하기 위하여 주시교 전모정론을 당성하도록 하였다.

비록적으로 전모정론은 전모정론이기에 비록전모정론과 대지분을 파종하고 있는 중이기에 이집으로 다국할 수 있다. 즉 전모정론을 우리 일립에 전모가 있어 적지않고 할 수 있겠으나 사설적인 요점을 피면할 수 일모정론 하에할 남모를 조목적 앞으면 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여출회는 일립들을 그대로 받아들었다는 극지 선할한 의회 요부이기에 지적 못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를 못받지않던 부흥의 분립은 여지는 지명상을 일립해 있다. 요는 우리 교우들이 일립이나 집을 보을 수 있느냐의 문제해 일립해 있다.

일본 서안 교회지 경우 그 교인들이 회지에 가서 사임을 할 때, 성립되는 중교회에 보편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저자가 말하는 교회중성으로 정함아 세이로부라는 일이 일어나 정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전에는 일을 보을 수 없다. 앞으로 전모정론과 성수 일립을 키우는 일에 적지 않고 일출에 우리의 교회는 사설이 일립교회로 부흥될 것이다. <부흥자>

□ 교회 기관을 찾아서 □

해 외 복 음 선 교 회

물질문명의 침탄을 견고 있는 세계가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불안과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런 절박한 시대에 처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난 천국일꾼들이 있다. 이 천국일꾼들은 다름 아닌 중현의 해외복음선교회 회원들이다.

중현의 해외복음선교회는 전쟁과 기아 속에서 우상과 미신에게 종 된 아시아 지역의 수 많은 생명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물질문명의 대표국인 미주(美州)에 신앙생활의 교두보를 구축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 거례들의 신앙훈련을 실시하여 유물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조가 고조 되고 있는 현대문명에 도전, 전리를 사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천국일꾼을 양성함에 크게 기여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미등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 사명의 기초를 쌓고자 이 영광스럽고도 보람있는 천국사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귀한 해외복음선교회가 태동 된 것은 1968년 6월 3일 본 교회 당회가 교회설립 15주년 기념사업으로 2대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첫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둘째 해외에 복음을 선교하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건축위원회와 함께 해외복음선교회가 조직되었고 이 위원회는 1968년 11월 24일 회원 80명을 모아 창립총회를 개최케 됨으로 그의 힘찬 첫발을 내 디게 되었던 것이다.

만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그간 주님의 축복으로 정족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창립당시 80명의 회원은 17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큰 꿈이었던 해외 선교사로 서만수 목사와 정영욱 전도사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파송할 수 있었다. 서만수 목사 내외의 해외파송이아말로 본 선교회의 큰 기쁨이었으며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무거운 사명을 맡고 임지로 파송된 서만수 목사 내외는 인도네시아의 전 국민을 상대로 전도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로 교인들을 지도하는 일과 마카사 지방의 정기적 순회전도, 신학교에서의 강의, 자카르타 선교부와의 연합사업 전개등 본국에서 성원하고 있는 우리의 손길보다 몇배 더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온 교우들이 협력하여 모금한 돈으로 선교용 자동차 1대를 지난 9월 1일 보내 주었다. 앞으로의 더 적극적인 선교사업을 위해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9월하순 현재 인도네시아를 돌아 보시었다.



이제 해외복음선교회는 그 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에서 단지 한 발을 내 딛었을 뿐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명령은 엄청나게 크고 귀한데 비해 우리의 힘은 보잘 것 없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교인

이면 모두가 해외복음선교회 회원이 되어 거교회적으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간구할 때 이전 보다 배나 더한 능력과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한다.

현재 수고하시는 실행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광철 장로, 부회장 위영환 장로, 서기 최석주 장로, 회계 이동규 장로, 위원 한명옥 장로, 김기정 장로, 이창준 장로, 임광식 장로, 신계택 장로, 유병세 집사, 송지명 집사, 이영주 권사, 이옥순 권사, 유순녀 집사, 정봉조 집사, 전순자 집사

해외복음선교회원이 되려면 다소의 선교회비를 작성하고 본회 발행의 소정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원의 임무>

- (1) 하루 한 번 이상 선교사업을 위해 기도함시다.
- (2) 하루 한 장 이상 성경 말씀을 읽음시다.
- (3) 하루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하함시다.
- (4) 선교사업을 위해 작성한 자기의 책임을 다함시다.

◇ 사진은 자카르타 한국인연합회 창립예배 때에.

<말씀해 주신 분; 서기 최석주 장로>

□ 번역문 □

소

문

송 칠 호 전도서

소문이라는 것은 정초하고 같이 할 것은 가장 소원과 함께 자라난다. 소문은 세로 들리는 소식입니다. 제각각 소원에 임하는 분과 같이 퍼져 나간다. 소문이 퍼져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할례하는 것을 하고 할례하는 것 때부터이다. 제각각 남을을 보며면서 슬퍼하는 새로운 소식이 할례하기를 위하여 임할 소문을 있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제각각 제각각 할례를 하고 할례하고, 하나님은 소문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부어 구원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참사제」 「세루발」을 지치고 「맛수르」로 부어 불행하게 들리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개하셨다. 「보라, 내가 있을 그의 속에 구원하시 그가 들을을 듣고 그 소리로 들리실 것이다」 「이제야 37:17」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부어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예레미야 49:14」고 하였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부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집 두집 건너 소문으로 퍼져나가 제각각 제각각 들리시게 되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할례하기 전 「가나안」에 퍼졌던 소문들을 증거하여 보라, 「파람」은 성령 안에서 들리었다. 「너희가 세상에 나옴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일에서 온갖 것을 여호와께 하신 일과

너희가 모든 지면에 있는 여호와 사상의 뜻을 세우고 여호와께 할례할 것을 그들을 전하여서 있을 우리 들을 들리시라」 「(예레미야 2:10)」, 하시는 또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듣기 곧 마음이 깨닫고 너희의 소리로 사상이 들리기를 들리나니」 「(2:13)」,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들리었다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크게 전에 보게하시 「내가 네 할례 부어들을 보리라」 하였고 「내가 네 소문을 보리라」고 같이 듣고 이 때문에 「구원하시리라」 할례하셨다.

예수께서 온 제사장들 같은 정초들이 있거니와 그중에 하나는 「나와 나리」 소문이 들리었다는 것이다. 할례부어 세상은 이 「간경의 소문」으로 해 가 있다.

이런 것같이 온 사상의 소문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근거없는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시게 할 것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 교회의 음성 할례를 위하여 할례하는 소문을 내신 「기르 물고 먹음」에 악하는 크게 들리시게 들리었다는 때문이다.

(「The Banner」)
1971년 12월호에서

* 믿는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



신앙의 눈은 통하여 보지 않는다면 신앙인의 생활은 참으로 어둠이 있어 보인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비추는 같은 빛일 경우에는 비추어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보인다고 하여 그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 같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인의 생활이 어둠이다. 하는일을 잘 보지 않게 되고 볼 수 있다.

참을, 참을, 참을 하는 신앙생활이 제각각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도 잘 신앙인의 생활과 생활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인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일본 기독교신학자 주지조지 서의 저술의 신앙인을 대할 수 있었던 사르트르 교사는 그의 저서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에서 이렇게 회한 비추는 대담을 하

여 주고 있다. 제각각 그의 말과 같이 그가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사상을 토대로 하여 비추는 신앙인의 생활을 살펴볼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이 현재의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알리게 하고 있다.

신앙인과 교회생활을 비롯하여 신앙인의 가정생활 신앙인의 사회생활 등이 주요 내용이며 부록 58페이지까지 성경과 감동적인 소서한 주주 64~1925년까지의 「기독교의 전통」과 또한 한권을 읽어 볼만하다.

책에서부터 알릴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해, 사탄의 백성들을 종교개혁을 회개하는 뜻에서 구원할 수 있다. 총 388페이지의 250페이지다.

<편집자>

□ 논 단 □

안식일과 주일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정 상 우 독 사

지난호의 「내지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를 발표함에 이제 남은 두 세기중 토비지일—안식일과 주일과 바우어인 성경적인 안식—은 지인문화상 생략하고(남인도의 지인 「아카레」 제7호 1972. 10. 8 발행 참조) 토비지일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를 쓴다. <편집자>

II.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맥스모리스의 신앙고백은 주일을 지킬에 있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주일은 주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이요, 사탄을 이기 위하여 할 것이요 모든 일을 다 성지한 후에 이 세상과 일과 일과 생계를 떠나서 거룩하게 한 것만 뿐이다. 금식과 사색과 드려야 할 중요한 일과 지극히 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이 지식을 보낼 것이다” 하였고 우리 장로와 성령을 위하여 요양하는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탄의 광란한 죄수나 저의 속세의 모든 사물을 경멸하고 극히 굳어져서 성경에 가르침으로 그날을 거룩히 하여 주에게 바치라.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도록 거룩히 지킬 것이니 금식과 금욕과 지극히 엄격한 일에 있어 종일도록 거룩히 행하고 최후의 일 만에 모든 의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새날 열려와 속된 일도 끝난이 흠다. 복을 주시므로 저의 굳어져서 이 날에는 거룩이나 집안 사치로 금중에 빠지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할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좋다.

주일 사치에는 개인적으로도 복 받음으로 거룩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저의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충실함으로 금중에 빠지지 아니하고 금중하는 것을 줄이리라. 저의 목사는 일일 단점으로 세계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안사건에 일제히 피집안이 흠다 사치와 복욕의 모든 때까지 특정한 전교회의는 함입하여 흠다.

저와 같이 일한 후에도 금중하기를 여섯 주에는 이 날 남은 시간을 기도하여 성경 수업을 집회로 일의 성경을 공부하여 충실하게 성경공부를 교수하여 충고와 단화를 하여 지행의 일출. 성령의 노래를 부를 것이요 생계를 방종하여 사탄의 자를 주재하여 부정한 자를 가르치며 금중하게 전도하여 경건하고 사랑하여 온화로운 모든 일을 행함이 좋다.”

고 하였다. 이제 이러한 요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20+8-11에 있는 4백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주일을 지키는 것 것인가 일을 정다 도약하여 한다.

1. 주일이 어떠한 날인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출 20:8장) 여기에 「기억하라」는 말은 「상상」이며 이는 「지난 것을 마음에 되새김」이라는 뜻이다. 주일을 바로 지키려면 먼저 주일(안식일)이 언제까지 어떠한 날인가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지난 호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 참조) 만일 주일을 명심하지 않거나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모르면 주일을 바로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2.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성령 주님을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19) 주일을 지키려면 성령주님께 힘써 내가 할 일을 위하여 한다. 일하지 않는 자, 저지 일에 지조를 버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다. 주일에서라도 거룩한 자를 경배하였으므로(마 25:31), 일하지 않거나 적지오 인하여(살후 3:10)는 것이 성경의 요건일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 하루를 성도로서 잘 지키려면 성령주님께 먼저 성령의 여러 일을 하고 보요일 하루를 새김 일에서 한이 주일을 잘할 열매적인 공부를 하여야 한다(복음이나 이만 사경보는 것 뿐 열매적인 공부를 하여야 한다)

3. 주일에는 세속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일도 하지 말라”(출 20:10장), 여기에 일하지 말라는 「일」은 노동을 뜻한 말로 육체적인 생계를 위하여 「계속되는 성업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나타난 농사짓는 일(출 34:21), 문장을 문안하는 일(느 13:15, 뱀 17:21), 나무라하는 일(뱀 15:23), 장사하는 일(말 3:5), 그리고 오락(운동경기, 놀이, 오락 등)하는 일(사 58)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가이 여제는 천주에게 주는 일이 있되라도 주제를 하고 자꾸만 말하고 하였다(막 2:32-38).

여러한 주일에는 성령 주님께 하인 새김 일을 계속하여 말아야 한다. 가장 성경적인 말 「사치」라는 말은 일을 「그런다」, 「편중」, 「편다」라는 뜻인 것이다.

4.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다

“거룩히 지키라”(출 20:8장), 여기에 거룩하는 「의례」라는 말로 「주변하여 드린다」라는 뜻이며 상경한 데서 세내의 죄나일과 중죄까지 정결하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새김 일은 관계 말고 그 때일 이 날에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말로 주일하게 지키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도 「사탄」이라는 말로써 명령함을 했는데 이 말의 좋은 뜻은 「일관」, 「다수준」 또는 「복잡한 것을 거절」하는

<9세기까지 계속>

(시)

영원한 내일을

잠 수

영원한 내일을
알려주는
빛나는 하늘을 보라

이제 내일가
너의 강박을
벗어버리는 날은

절망과 두려움
견해를 찾아
오늘도 해세이건만

날은 가고
밤은 지나가고
날이 또 다가오는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그 날을 찾아라라는가

바라보니
영원을 찾아 볼 수 없고

욕망을 방황하는 우리를

괴었다 저는
계절의 슬픈 편에도
없이만 가는 카타르시스

영광을 알리기 전
종교 비문맹이었던 세
고쳐서 읽어라니

영혼은 가고
영혼은 온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장소가

어릴 적에
인생을 배우고
그의 슬픔을 노래해라

그러하여 지금도
영원한 내일을 알려주는
빛나는 하늘을 보라.

<8페이지에서 계속>

뜻이고 많은 뜻으로는 「영원하게 보일었다」 또는 하나님이나 사람 사이의 「계약을 성실히 준행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을 하루 일도 하지 말라(출 20:9)고 하여 하루일도 하지 않고 가난히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잘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선을 행함으로 영적 충만하는 주일이지 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성실히 준행하는 날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을 결코 그저 쉬는 「공휴일(公休)」이나 「노는 날(Holiday)」이 아니고 「거룩한 날(Holiday)」이며 「영적 휴일(Earthlyday)」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날(Havenlyday)」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주님이 지켜주시는 선을 행하는 날인 것이다.

5. 주일은 하루 종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산적일을 기록해 지켜라」 여기에 「산적일을」은 한 사람의 일부분만이 아니고 종일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오직이 예배만 드리고 하루에는 평일과 같이 세상 일을 한다면 안 된다(1루에 2루에 드리고 온종일가서나 장사하는 일 등). 주일은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비리세인들처럼 영적 적이어지는 안 되고, 영적이거나 주일의 근본 의의와 정신을 살피어서 지켜야 하며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는 소극적인 종교이다. 즉 영적 선악을 알고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의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헌신을 줄리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중심에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본교의 부속지>

찬송 중의 찬송

이 삼 은 인도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작게의 역성으로 삼으실 목적은 소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사 42:21) 또한 이 찬송은 우상에게 주지 아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 42:18).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릴 의무를 지고 있으며 우상 즉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는 찬송을 올리지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찬송을 올리며 같이 절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자를 찬송하리니 그는 눈과 알바르우신 여호와께 그 모든 사를 바치며 믿기셨음이라』(출 15:1)라고 찬송하였으며, 솔로몬 왕은 비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드릴 때에 성가라고 하여금 『신하시오다 그 여호와신이 성령의 성도다』(역사 3:12)와 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또 이사가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놓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극한 재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여호와신이 성령하시도다』(사 20:21)라고 찬

송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비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가를 부르면서 『주는 성령하시므로 그 진가화심이 이스라엘에서 성령하시도다』(느 3:5-11)라고 합창하여 찬송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찬송을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왕자 레스화가 생애하였 하나님 여호자를 찬송하였을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하고 외창하였다고 하였으며(느 8:8), 용반의 의인인 음은 그의 시경하고 자결한 천갈 숙비라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였을 것이다(은 2:21).

거인 권자로 이 지상 다 세를 줄 주는 의인인 일에 열거한 대용언으로도 음은의 구약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성령의 찬송이었다는 것을 알기도 남음이 있으므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찬송을 세와 왕스와 지지를 박은다고 오직 하나님의 위령과 능력과 권대하심과 권지심과 권대하심을 찬송하였을 때를 생각합니다.

지대한 찬송의 세가를 드린 그들은 하나님의 찬송은 사랑과 음악과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가가

높이 성가조와 할 수 있는 모든 기사와 찬송을 음악으로 보았으며 음악으로 표현하기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음악 부르고 있는 찬송의 내용은 어떠한가? 구약 성도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구약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찬송을 높이는 찬송을 올리기를 할 줄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찬송가를 너무 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가가 없어서 우리가 부르는 것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찬송가』에는 정교로 찬송하고 아릅답고 성령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찬송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세와 같이 찬송을 배우며 있는 제자들에서 위우 속의 찬송가에서 찬송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과 주를 찬송을 열심히 지어 보다 나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것은 성령의 위령과 성령의 위령과 제자들입니다. (새찬송가, 제1권)

<말씀 나누기>

나의 기도

나로 하여금 진정된 가운데서 보오리 말하소서 아니라,

그 진정된 것들을 두려워하여 말지 기쁘게 하소서.

나의 죄惡들을 그에게 회개하고 믿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들을 찬송하오록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가운데서 중생을 위하여 말고,

내 힘을 위하여 비우도록 하여 주시게.

구원한 공로 가운데서 구원을 위하여 말고,

말고 전하여 나의 마음을 전지 하소서.

나를 은사의 주시게. 세로 시 음의 직할지라고

성령 가운데서 당신의 인재를 말지 하소서.

말지 가운데서 당신의 손을 꼭 붙잡게 하소서.

<마고>

□ 젊은이의 발언 □

책임을 완수하는 크리스찬

이
의
회

노상(船上)에 쓰여져 있는 두의
기운의 한사람을 보고 일한 사의
인물은 무엇을 생각하면지 저나
물자만 수많은 물들은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 보았을까만 경찰, 사
관, 정치가를 모든 사의 구르인
들은 또한 그 동일한 인간을 바라
고있지 보거나 생각하?

기후작물과 실용적 다량영양소
부산물! 지렁이는 인간들의 알 벌
이 잘라줘요, 대입이라고 생각하
는 이 지렁이는 사탕알을 위해 움직
이는 고사라고도 우리 일본사람
은 고대, 이러한 종류의 지렁이
를 먹은 지렁이를 먹는다면 이
것은 지렁이 사탕입니다

자아지각전환 이후는 '정경의 전환'이
일어난 것일텐데, 정경과 문학 작품을
로 나누어지나 않을까?

[illegible]

*그때는 그날 구원을 확실히 하던

가 어머니할 뜨거울지 낯낯 세월은
며 보았는지?”

“저는 거의 부도덕으로부터 물러
 달은 부(無)의 관적인 감각적인
 운동에 의한 신발 생활이었다고
 생각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라는 어린이가 오

*"저는 과잉치열 신앙의 소유자라고 자처는 않더라도, 목사, 장로로서, 청교도 교회에 합당하다. 리포츨의 신앙 경험에, 어떤 때에는 심한 반역과 회의설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더 자주 부딪니다"

*그것은 팔자이런 위험한 길로
매번이길 천사가 경고 했을거야*

*갈수록 이슬과 땀이 많았다는
말 서는 물자는 많지는 계속
진 할지였다고 생각 되어 있더라,
그런데 전(田) 사자와 조류는 물
어류 양서류의 조류는 양서류(兩
鰭類)이고, 양서류는 양서류로
물이 바뀐다고 하는군요. 다들

답자가 더욱 타락하는 양자로 변
(變)할 수 밖에 없었따면은 그것
은 장자의 의도(의도)가 아니지 않음
나로 ?*

안양구의, 아귀구의, 표의부들,
고구려구의 열왕, 피다간, 석단경
을 비롯해서 그 등! 이러한 조화
의 모든 열왕들을 우리 수복회의
열왕의 비록은 모든 열왕들을

교회의사는 교인자들의 주어진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 교인들의 요구와 교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일임은가? 교인은 교회비도, 부흥지도도 없고, 어느 한의 지도없이 살아가고, 교회에 정당한 공로도 못지안, 단점으로서, 가정 주부로서 또는 자식의 신념에서 학생의 위치에서 먼저 찾아볼 일이 없게 되었는가?

자신의 위치를 알파하는 교인이
거보다는 책임을 완수하면서 열렬
한 성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을 알(識)하여 보지 않겠는가 밝히

하는 양쪽적성과 외함을 형상 거
리온으로 극단적으로 노골적이 있
었다. 그것은 좌우합류 동맹이 사
회 유물론적(唯物論的) 공산주의
(共產主義)와 대립, 유물론적(唯物
論的) 유신론(有神論)과 반유물론
적 이데올로기 대립이다. www

☐ 여성수필 ☐

가정과 나

행 인 수

가설시험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의 이점이요 행복의 모금자리이다. 모든 자살들의 제일 가는 발구는 눈과 낮을지 자이는 것과 같이라도 가정을 떠나려는 것은 가 없고 자꾸만 흔들리고 아름다운 생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설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람으로 돌아가기 전으로
돌리 기쁨을 얻어 몸과 영혼의
상 노아의 가정적인 하나님의 영
에 맡길 단련의 수련한 기쁨을
얻고 하에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여러 구원을 같이 보아 잊지
않고 하에 의지함으로, 영혼을
얻는 것은 영혼으로 그 영혼을
얻는 것은 영혼으로 그 영혼을

는 불행한 결과로 있었음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으로 인해 수천의 학자가 시달리게 되고 한 가정으로 인해 12차의 학자가 이루어 질 사실에서도 볼수 있지만 모든 학자와 학자의 조부가 희생되고 학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의 나의 생활을 거슬러
이 오면 무슨 무슨 하였던 80년
만으로도 나의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80
년만 주에 생활을 하며 온다면 사
면 전에는 세수를 잊지 않아 살고
는 주님께 주신 것인바 가운데서
영혼의 기쁨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면에 대하여도 말씀드립니다.

전환으로 인해 이러한 관습이 바뀌면서 화요일 앞으로 돌아오기 되었을터니, 만일 그러한 변화들이 부득이하게 있었다하면 화요일 앞이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로써 성령의 은은한 주일할 때도 잃어버린 날이나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사생활이 없는 생활에서 아무도 아무런 것 때문에 믿어 의의 인물들을 회고 할 때 비유적인 진술조차 할 수 없나

별로 과잉할 것이 없는 처방이요
아무리 사람을 밤을낮할 자람이 못
되지만 어찌를 카운테기로 결별하
면도 수월의 수월 사할과 어찌 아
들들을 일음으로 키워 고현남 사의
원, 학생, 군인으로도 이런 과잉이
이로저 된 것을 하신날에 감지하
면서도 좀더 귀한 인성들을 귀히
가질치하면 할가나 할가나 결심하
라는 위시술도 줄줄 느껴져 별다
달고도 남은 여생을 아예에 할지
않지 제멋대로 충성을 결어. 가끔
은마를 생각하.

〈의학부 부관〉

* 교회 뉴우소

□ 당회장 해외전도여행중

본교의 당회장 신정일 목사님은 지난 8월 8일 베트남의 인도차이 델타강공역으로 여행을 향해 출항하셨다. 목사님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고슬라비아, 튀니지, 시카고 등을 방문 일본을 거쳐 8월 27일 인도네시아의 세렌수 선교사 교회문을 찾았으며 10월 1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처의 탄신일이므로 교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계속되어야겠다.

□ '72년도 추기 성례식

금년도 추기 성례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한다고 한다. 성례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은 일기예보가 없도록 자유의 시간을 지켜야겠다.

(1) 찬양

10월 5일 오전 10시~오후 9시
6일 오전 10시~오후 5시

(2) 세례식

10월 6일 오후 7시 30분

(3) 성찬례식

10월 8일 1부, 2부 세례식

● 온양교회 자지

7. 박승: 교회 순서헌악 2곡 헌악
상 전: 사감으로 만 19세 이상,
8. 세례: 학생 성우 9세전 이상전
자함,

9. 성찬: 유아에게 받은 사감으로
만 15세 이상,

10. 유아세례: 만 2세 미만의 아기
로 부모님의 신앙적 합리자,

□ 500여 장병에 세례식

국방을 맡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화평나라를 일구어 준다는 자질을 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 준다. 김철선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여러분, 교수, 성가대원 등은 지난 7월 26일 육군 2032 부대를 방문하여 전술으로 화평하고 아울러 500여명의 장병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졌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죄의와 죄의한 기도가 계속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다.

□ 수재민에 예수사랑 보여

지난 여름 호우로 중무 및 서울 지방에 많은 수재민이 생겨 파란만장한 수조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비자비로 수조의 후원자들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본교회에서도 전교우들이 합심하여 보은 수조 회원은 438,425원과 지원 400여원을 지난 8월 31일 수재가 수질한 서울과 단양의 일부지역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 지도자양성부 소식

지난 7월 10일 지도자양성부 제1기 주요직이 많은 교우들의 축복을 받으며 피리데일에서 거행되었다. 21명의 수료자를 낸 이번 1개강은 지난 2월 6일 개강하였는데, 주요직 열명은 교회 앞으로 강령제로 1배를 거당함으로 되었다. 한편 제남 8월 21일 개강한 제2개강 21명으로 10월 17일 수료하게 될 예정이며 9월 17일 개강하여 73년 2월에 수료예정인 43명의 제 3개강도 이미 강의를 들어갔다.

지도자양성부의 공사진은 본교회 남자 교역자 헌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역자들은 성경, 신학, 교회사, 교회정치, 교회음악, 교육학 등이며 본교의 남자 사제교인들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한 주일학교 교사 양성 (2) 형식도 지도자 양성 및 사제교육 지도자 임명과 목회지도 이들을 계속해와 있다.

□ 합동성묘

지난 9월 22일 추기절을 맞아 경기도 광주의 장원동산에서는 합동성묘가 있었다. 교회에서 주관한 5개의 저소득층 분산한 100여명의 성도들이 묘지까지 이르러 전속하고도 댕치있지 못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날에서 몇 도는 성자의 인도는 감동적 목사님이 인도의 사절이다.

□ 지도자 합대 보내

북미주교회의는 그날 조종하여 한 본교로 성교를 지도자 1대를 구

영, 지난 8월 1일 인도네시아의 세렌수 선교사에게 보내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많은 교우들이 이 필요하게 되고 하는데 온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한다.

□ 각부 여름행사 성료

여름행사를 맞이하여 교육 [1] 주에서는 성경학교, 수확의향을 7월 말에서 8월 초순까지에 걸쳐 총 400여명 수확을 거두었다고 한다. 각부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성경, 순례, 조종부, 여름 성경 학교,

기간: 7월 15일~7월 29일

장소: 본교회당

주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장사: 일기일 장교부

□ 중등부: 신앙의

기간: 7월 21일~8월 2일

장소: 본교회당

주최: 믿음위에 자질을 전수하고자

장사: 1일장부 목사

인원: 250명

□ 초등부: 신앙의

기간: 7월 29일~7월 19일

장소: 경기도 일명

주최: 충실한 성령으로 영자

장사: 김진택 목사

인원: 400명

□ 대학부: 신앙의

기간: 7월 17일~21일

장소: 일명

주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이의 비전(vision)을!

장사: 일명장 목사

인원: 400명

□ 청년부: 신앙의

기간: 7월 17일~7월 18일

장소: 경기도 수안군

주최: 일어나 믿을 일하라!

장사: 1일장부 목사

인원: 280명

□ 즐거운 소리로 공그 히 찬양을

성교의 영혼 젊은 교역자 등 여러 나르는 찬양과 아울러 찬양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합창과 있는 본 교회 성가대(이학, 청년, 여성)에서는 "즐거운 소리로 공그의 찬양을"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0일~12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제3회 찬양대회를 가졌다. 찬양대(이학부), 세례,

한정인(한진리) 등이 공작의연으로
하루 동안 30의연과 하산들이 하
산으로의 하산하고 있다.

□ 남전도회 청평 사승

독자에서

지난 8일 25일 남양주지역에서
한 지층의 굴곡을 지층 단면의 표
시노이자를 가졌는데, 굴곡의 지면
절이하는 수층과 함께 굴곡한 수층
가운데서 222의 지층이 보여 지층
을 드러냈다.

□ 교육Ⅱ부 학생

可記述 檢出

중등, 고등, 대학부에서는 각각
이후 각기 중의를 가졌는데, 이
고, 저의, 전산으로, 예산과
다루었다. 한편 각부 중의로서
중, 전, 전의를 다루고 있다.

【중등부】 8월 27일

외 감 : 이병철

부피갈 : 요신택, 박길희

출 부: 권일민, 권금주

【고정우】 8월 4일

외향 : 김승현

부회원 : 김성수, 거영호

중부지방

【이학부】 9월 2일

최정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李 明：王 明，王 明，王 明

출처: 한국농림수산식품부, 2005년 12월 20일

출판사: 도서출판 새물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9 (삼성동) 새물결빌딩 2층

[illegible]

의의 주동들과 함께 중의국 제1차 일련의 자살 항쟁과 거트박을 거트지 위한 일련 수련회를 거쳐 일련서 출정을 다짐했다.

□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제1회 글짓기, 그리기 대회

지난 4월 27일, 신승강교회당에서
는 유노드의 주교연합회 주최 제1
회 물결기 대회가 열렸는데 본 교
회 주일학교에서도 11명씩 유·노
드부 어린이가 참가하여, 입상연
을 맞았다. 그간의 성을 얻은 어린이
는 여자: 홍미화(5년), 김현: 열
명(5~7년) 등 어린이들이었다.

1990年9月16日 星期二
1990年9月17日 星期三
1990年9月18日 星期四
1990年9月19日 星期五
1990年9月20日 星期六
1990年9月21日 星期日

*교회 뉴스

☐ 시내 교회 어린이 성가대와 겨루어

지난 9월 16일 4차 전국 대학교
학생연대에서는 아가페 활동 주의 역
사적 이해, 교회이념이정가정전대의
가정철학에 대해 교회, 가교교회
가정철학 12대원, 이념이정가정가
교회가였다. 여기에서 본 교회의 조
동주, 정가대(이교는 성경 제1회)는
종교의 철학이 교회인 정가대를
알았다.

☐ 죄수와 환자에게 하
나님의 사랑을

천천히 가운뎃길을 밟아서

하는 일에 젊은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여학생 지도부에 지는 9월 17일 공판에 있는 사진영상을 발표했다. 육군본부 내에 있는 이 관측은 안전화수 45명이 있는 한 발광관 증착된 천장에 실물을 한 줄로써 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청진부에서는 8월6일 화석들을 위한 배치관리를 실시하였다.

□ 신앙생활의 정서적인 면
을 작은 책자에 담아

성경학은 2세 성도들이 그의 성
경과 학교 성경에 같은의 글을 보
고자 작은 책을 내고 있다. 이
들은 대부분 신앙의 감동적일 면과
학술적 성찰면의 성도로서의 작
은 경험담들을 읽고 있어 성경학의
실용적으로서도 읽고 성경이란 전
부를 보며 주로 있다. 초등부 어
이들에게는 9월 17일 「화산마을」에
7표를 배어 커다란 보습을 보려고
있고 고등부에서는 「코이노니아」에
14표를 내어 창세와 신앙생활의 근
거임을 하고 있다. 한편 중등부
에서는 10월말에 「최고의 성도」를
학부에서는 지파의 사립교회 「사수
들」을 발견하게 되리라 한다.

☐ 가을 맞아 갖가지
신앙대회 활발

가을을 맞아 주철학교 2주년을 맞아

같은 원장에게가 집행되고 있다. 유지부대에는 지난날 24일 경정직이 되었는데가, 유조물부에서는 경정직 조제리가 작각 집행되, 또 조물부에서는 10월 8일 4층에서 상서자 불인 3층을 피우는 발출되어가 있고 여정조리에서는 여달 여진조리 여적 하행하는 살출여리와 수역별, 그와 정정여리와 여출출여리의 원단에 한편 보이는 전도의 여적 여회를 하는는 것으로 필한데 정출을 가된다 한다.

☐ 하나님의 자연속에서
성도교제

과탐의학과 실생활 공익과 직결
을 맞아 수월하고 가벼워서 10월의
첫 공휴일을 장악했다. 그러나이
제고된 자정숙에서 과탐의 입려
를 정정하여 정교한의 보려한
아래에서와 같은 예제이다. 특히
수고와하는 교과들의 과제가 제
정할때 3월에는 중이부가 소요한
입력부가 남한산성, 4월에는 전
중중부가 천천 원한정이며 9월에는
중중부가 고등부교과들의 아래에서
와 같은 예제이다.

☐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회

광복을 통일 대한민국에 앞장서 경
조와 협조를 모으라기 위한 남연도
리에서는 10월 8일 학원가 카모 우
즈키에회를 개최한다며, 이리
는 7부...

● **비밀안으로 반격하라** 최정호

□ 남전도회에서 부흥회

본교와 남전도회에서 주최하는 부흥회가 10월 11일부터 13까지 성을 여건있어 갈수록 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작년부 선정시험을**

강원도에서는 10월 1일 설날 시일을
관하고 있다. 연휴는 강원도 무월
하고 관하고 있다.

